

문수사(文殊寺) 간행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기입 차자표기(借字表記) 어휘 연구*

하정수 **

-차 례-

1. 서론
2. 기본 서지
3. 문수사판 『법화경』 기입 차자표기 어휘
4. 결론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90709).

** 동국대학교 교육연구원 전문연구원

[국문초록]

이 연구는 고양 원각사에 소장된 한문본 『법화경』의 서지 사항과 경문의 좌우에 기입된 묵서 양상을 개괄하고, 그중 차자표기 어휘를 기입 특징, 차자표기 방식, 부정 구문의 차자표기 어휘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제2장에서는 이 문헌의 서지사항을 형태 서지와 내용 서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법화경』의 특징과 당시 경전 유통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았다. 제3장은 이 문헌에 기입된 차자표기 어휘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첫째 한자 ‘爲’에 기입된 표기의 예를 들어 경문 한자의 의미를 충실히 해독하거나 번역하는 상세하고 정밀한 축자적(逐字的) 표기 특성이 있음을 밝혔다. 둘째 차자표기 어휘의 차자 방식은 한자의 차용 방법에 따라 음차, 훈독, 훈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때 차자표기에 훈주음종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문헌의 차자표기 어휘에서 ‘ㅂ’ 불규칙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남부 방언과 관련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셋째, 부정 구문에 나타나는 차자표기 어휘에 대한 것으로, 이 문헌의 부정 구문은 장형 부정이 선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법화경언해』의 부정 구문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제4장은 앞의 논의를 정리하여 이 문헌의 차자표기가 국어 어휘사뿐만 아니라 차자표기 전반과 방언사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로서 의의를 갖는다는 점을 밝히고, 이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고양 원각사, 고창 문수사, 법화경, 법화경언해, 법화경요해, 차자표기, 구결, 방언

1. 서론

고양 원각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고창 문수사판 『묘법연화경』(이하 문수사판 『법화경』)은 15세기 초인 1417년 간기가 있는 불경으로 음독구결과 석독 표기, 음주, 훈주, 주석 등이 목서로 기입되어 있다. 이 연구는 문수사판 『법화경』에 기입된 목서 표기 중 차자표기 어휘를 판독하고 그것의 성격을 구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문헌에 기입된 목서는 대부분 한자와 한자의 생획(省劃) 구결자 등 차자표기로, 경전 원문 한자의 뜻을 따라가는 축자적(逐字的)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차자표기가 나타내는 언어 사실은 그 상한이 간행 연도를 넘지 않지만 구결 등 차자표기가 갖는 표기의 보수성을 감안하면 그 이전의 언어 사실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463년에 간행된 간경도감본 『법화경언해』의 저본은 계환의 주해와 일여(一如)의 집주(集註)가 붙은 것으로 번역에 해당한다. 언해는 경전 본문과 계환의 주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수사판 『법화경』은 『법화경요해』로서 『법화경언해』와 경문과 요해가 같다. 그러므로 이 『법화경』의 동일 경문에 기입된 차자표기를 『법화경언해』의 언해 번역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법화경』은 간경도감본 『법화경언해』를 포함하여 조선 전기에 간행된 불경 중 자료의 양이 가장 많은 경전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법화경』 문헌은 국어학, 불교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특히 국어사 분야의 『법화경언해』 연구는 중세 국어와 관련한 것이 많다. 그러므로 조선 초기 『법화경』에 기입된 차자표기 연구는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자료와 한글 창제 이후의 문자 자료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 문헌의 경문 좌우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입된 목서는 그 성격에 따라 음독구결, 석독 표기, 음주, 훈주, 어휘 차자표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밖에도 변란 밖에 기입된 주석들은 경전의 내용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 차자표기의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조선 초기 『법화경언해』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문헌에 기입된 목서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한자 약체 구

결로 각 행의 오른쪽에 기입된 음독을 위한 구결이고, 둘째는 경문 좌우에 세필로 기입된 경전의 내용을 우리말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석독 표기이다. 석독 표기 중에는 경문의 한자의 훈에 해당하는 내용이 한자 차자표기 방식으로 기입된 것이 많다. 이 밖에도 음주, 훈주, 난외 주석 등이 목서로 기입되어 있다. 이 문헌에 기입된 차자표기 어휘는 『법화경언해』의 한글 구결 및 언해와 표기 문자가 다르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문헌의 차자표기에 대한 연구는 국어 어휘사뿐만 아니라 차자표기 전반과 방언사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로서 의의를 갖는다. 한글 표기는 투박한 필체로 몇몇 곳에만 나타나므로 일관된 표기 규칙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제2장에서는 기본적인 서지에 대해 논의하고, 제3장에서 차자표기 어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기본 서지

2.1. 형태 서지

이 『법화경』은 1417년 전라도 고창 문수사에서 간행된 요해본 『법화경』으로 전질 7권 2책으로 묶여 있다. 1책은 1권-3권까지이고, 2책은 4권-7권까지이다. 성달생(成達生)이 쓴 1405년(태종 5) 안심사(安心寺) 간행본을 복각한 것으로 행자수는 10행 20자이다.¹⁾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서비스시스템에 따르면²⁾ 제1책

1) 소장처인 고양 원각사의 정각 스님에 따르면 1권~3권 첫 번째 책을 입수할 때 1405년 안심사관으로 파악하였는데, 그 후 4권-7권 두 번째 책을 입수하면서 두 책 말미에 공통으로 기록된 인출 유통 목서 ‘施主 灌心, 妻小斤召史’와 두 번째 책의 간기 기록 및 각수 기록 ‘性柔 德連 省文 月岑’을 통해 같은 판본의 책이 둘로 나뉘어 채책된 것이라고 하였다. 각수 기록은 1권 말미의 권미제 아래 ‘柔’, 제6권 권미제 아래 二卷六卷 德連刀, 제7권 권미제 아래 ‘卷四七 省文 刻’이 있고, 다른 권차에는 각수 기록은 나타나지 않았다. 필자가 살펴본 음독구결, 석독 표기의 차자표기 등 목서 기입 양상이 두 책에서 동일한 질서를 가지고서 나타나므로 전체 7권을 둘로 나누어 장정하였지만 한 질의 책을 대상으로 동일한 체계를 갖는 차자표기 목서가 기입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신집성문헌 (<https://kabc.>

(ABC_NC_I_KR_08_A002_00014_0001)은 크기가 28×16.5cm이고 상하단변(上下單邊)으로 무계(無界)의 10行 20字이고, 장정은 선장(線裝)이다. 책의 앞부분에 있는 변상도, 서문, 권수가 잘 남아 있다. 제2책(ABC_NC_I_KR_08_A002_00503_0001)은 크기 28.2×16.1cm이고 상하단변(上下單邊)으로 무계(無界)의 10行 20字이고, 장정은 선장(線裝)이다.³⁾ 두 책 모두 본문 전체에 목서로 한자 약체자 음독구결, 석독 표기⁴⁾, 주석, 음주, 훈주 등이 기입되어 있다.

dongguk.edu/)에서 이 문헌의 서지사항과 문헌 전체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열람할 수 있다.

- 3) 2015년 10월 20일 첫 번째 방문 이후 수차례 소장처를 방문하여 자료를 실견하였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에 자료를 공개하고, 연구를 허락해 주신 소장자 정각 스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자료 조사 기회를 주신 정재영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한다.
- 4) 안대현(2021: 80)에서는 고양 원각사 소장 『능엄경』의 석독을 나타내는 차자와 한글 표기 등을 이전의 ‘훈독구결’, ‘석독구결’, ‘해석구결’ 등 선행 연구의 용어를 정리하고 ‘석독 표기’로 제안한 바 있다. 하정수(2022가: 211)에서는 음독구결의 상대적 개념을 강조하여 ‘석독구결’ 용어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차자표기 어휘가 논의의 중점이므로 구결과 관련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석독 표기’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사진 1]



7권 53장 앞면

7권 53장 뒷면

(1)은 위의 [사진 1]의 간기와 시주질(施主秩)을 판독한 내용이다.

(1) 문수사판 『법화경』 간기 및 시주질

永樂十五丁酉年夏募高敞地文殊寺刻板隨喜施主 李文 千伊 朴禿同夫妻, 刻手 性柔 德連 省文 月岑, 中郎將 李文夫妻, 前長水 金遐, 司直 高乙富, 同願比丘 能山 希演, 前豐儲倉副使 庾彦剛, 功德主 大化主 禪師 信空

간기의 ‘永樂十五丁酉年’을 통해 간행 연도가 1417년(태종 17)임을 알 수 있다. 시주질에 등장하는 전 풍저창부사(前豐儲倉副使) 유언강(庾彦剛)은 조선왕조실록에 보인다.⁵⁾ 실록 기록을 참조하면 이 문헌의

간행과 유통에는 왕실 인물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⁶⁾

이 문헌에 대한 연구는 『원각사의 불교문헌』(2017, 동국대학교불교학술원불교기독교문화유산아카이브(ABC) 사업단)에서 안심사본의 복각본이라는 점과⁷⁾ 변상도의 의미 및 각수와 소장자에 대한 내용 등의 간략한 서지사항에 대한 것뿐이다. 이 문헌의 유통과 간행뿐만 아니라 문헌에 기입된 묵서와 구결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2. 내용 서지

『법화경』은 대승불교의 대표 경전 가운데 하나로 삼국시대 국내에 수용된 이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 계속 서사되고 간행되었다. 또한 『법화경』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불경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으로 개관 종류 수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판본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는 발원자가 이 경전을 간행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극락왕생, 중생구제, 현세구복 등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정왕근(2012: 1)에 의하면 『법화경』은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이며, 불교 전문 강원의 수의과(隨意科) 과목 중 하나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을 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사찰에서 승려 교육을 위한 강원 제도가 확립되고 강원 교육의 고등교육과정의 하나인 대교과(大敎科)의 교재의 하나로 『법화경』

5) 풍저창부사(豊儲倉副使) 유언강(庾彦剛)은 조선왕조실록에 태종실록에 1회, 세종실록에 2회 나타난다. 본래 한미한 신분이었으나 태종의 딸 숙진옹주(淑眞翁主)와 인연이 있어 품계가 대호군(大護軍)까지 이르렀으나 후에 옹주를 헐박하는 등의 죄로 참형에 처해져 가산이 몰수되고 처자 또한 노비가 되었다.(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29일,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1422) 9월 19일, 9월 27일 기사)

6) 문헌의 보관 상태 등을 살펴보면 이 문헌이 인출 후 오랫동안 귀중하게 보존되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문헌에 기입된 묵서는 그 기입 시기가 동일하지 않지만 한글 창제 전후로 조선 초기의 언어 사실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7) 조선시대 간행 목판본 묘법연화경의 1/3가량이 성달생서본계에 속한다(정왕근 2012: 21). 송일가정왕근(2013)에서는 고려시대와 조선 초의 『법화경』 판본에 대하여 정리한 바 있다.

이 채택되면서 승려 교육용 교재로서의 쓰이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계통의 많은 판본이 간행되었으며 그중 다수가 현전되어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이중 계환의 주해인 『묘법연화경요해』 7권본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통되었다. 그 이유는 요해의 내용이 한국불교의 흐름과 일치하고 문장이 간결하며 이해가 쉽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판본을 살펴보면 전국 각 사찰에서 간행한 것으로 간행 기록이 뚜렷한 것만도 117종이 전해 오고 있다.⁸⁾

『법화경』에 대한 연구 주석서로는 신라시대 고승들의 저술을 비롯하여 중국 역대 고승들의 저술이 수십 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법화경』 송나라 계환(戒環)이 1126년에 저술한 『묘법연화경요해』 7권본이다. 『법화경』은 『삼국유사』와 의천(義天)의 『신편제종교장총록』에 이 경전에 대한 신라인의 연구 주석서 목록이 있는 점에서 그 역사가 오래임을 짐작할 수 있다. 세조 때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교 경전을 간행하였는데, 『법화경』에 관한 것만도 3종이나 된다. 『법화경』은 7권 28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품(序品)에서 시작하여 제28품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에서 마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25품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이 관음 신앙의 근거로서 특별히 존승되어 따로 『관음경』으로 편찬되었다.

『법화경』의 핵심 사상은 삼승이 결국 일승으로 귀일한다는 회삼귀일사상(會三歸一思想)이다.⁹⁾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하여 성문과 연각과 보살 즉 3승의 무리들에게 각자 맞게끔 갖가지의 법(法)을 설하였지만 그것이 모두 깨달음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 시방불토에는 오직 일불승(一佛乘)의 법만이 있음을 밝힌 것으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 내용은 제2품 방편품(方便品), 제3품 비유품(譬喻品), 제4품 신해품(信解品), 제5품 약초유품(藥草喻品), 제7품

8) 문상련(2018: 174-181)에서 『법화경』의 수입 내력과 고려시대 간행 현황을 논의하면서 [도표 3]에서 고려시대 간기가 있는 『법화경』의 판본 목록을 정리하였다.

9) 박광연(2013:22-61)은 『법화경』의 성립과 중국과 한반도로의 전파, 삼국 시기 『법화경』의 수용 양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전승되어 『법화경』 간행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화성유품(化城喻品)에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문수사판 『법화경』에도 각 품에 따라 경문의 내용을 보완하는 주석이 경문과 난외에 목서로 기입되어 있다.

3. 문수사판 『법화경』 기입 차자표기 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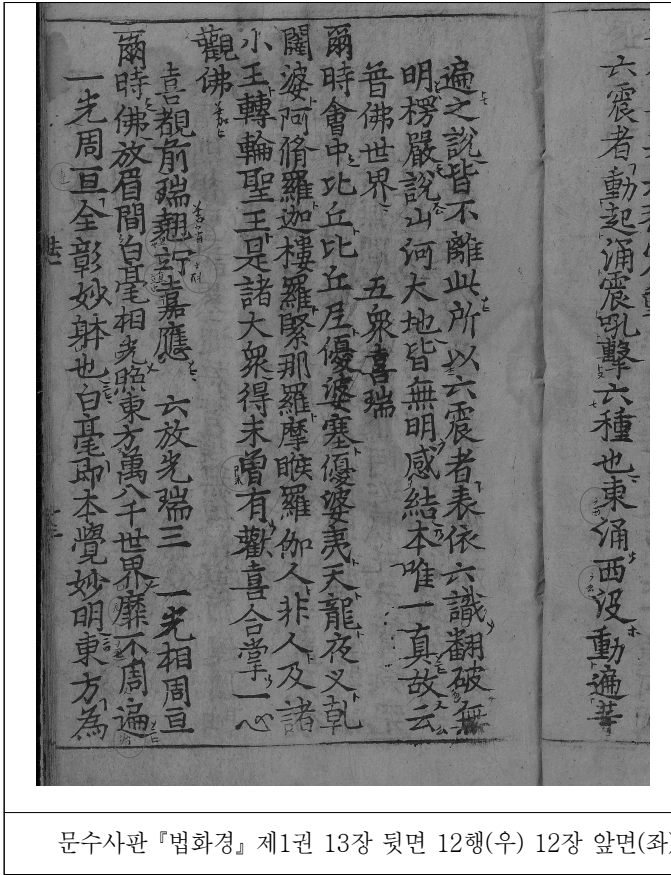
3.1. 기입 목서의 특징

이 문헌에 기입된 목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 차자표기 부분과 그 밖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구결 부분은 음독구결과 석독을 위한 차자표기로 나뉜다. 기입된 목서는 이 문헌이 내용을 학습하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입한 목서로 추정한다. 이 목서는 『능엄경』 등 조선 초기 간행 문헌에 기입된 석독 표기가 갖는 우리말 번역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¹⁰⁾ 그러나 이 문헌의 차자표기는 조선 초기 석독 표기가 기입된 다른 문헌과 큰 차이를 보여 준다. 『능엄경』 등 15세기에 간행된 문헌에 기입된 석독 표기는 대부분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어 있다. 그러나 문수사판 『법화경』 석독 표기는 우리말을 표현하는데 한자를 빌려 쓴 차자표기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이 일곱 권 전체에 두루 나타난다. 한글 표기는 투박한 필체로 20여 곳에 한정적으로 쓰이고 있다.

[사진 2]는 이 문헌에 기입된 목서의 성격이 잘 드러난 부분이다. 기입된 목서에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을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살펴보자. 표시한 부분을 확대한 사진을 제시하고, 『법화경언해』 해당 부분의 한글 구결과 언해를 제시하였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0) 조선 초기 구결 및 『능엄경』의 석독 표기에 대한 논의로 安秉禧(1977), 南京蘭(2005), 남경란(2008, 2010), 하정수(2020), 정은영(2022), 하정수(2022나)가 있다.

[사진 2]



문수사판 『법화경』 제1권 13장 뒷면 12행(우) 12장 앞면(좌)

첫 번째로 12장 뒷면 마지막 제10행을 살펴보자. 이 내용의 『법화경 언해』의 해당 부분을 (2)로 제시하였다.

(2) 한글 구결: 六震者는 動起涌震吼擊六種也 | 라 東涌^{호야} 西沒^와 動遍等遍之說이 皆不離此^{호니라} 所以六震者는 表依六識^{호야} 翻破無明^{호니라} 楞嚴에 說^{호샤디} 山河大地 皆無明의 感結이나 本唯一眞이라^{호시니} 故로 云普佛世界라 <1463 법화 1:58>(밑줄 필자, 이하 같음.)

언해: 六震은 뒤흘과 니름과 소슴과 떠름과 울음과
툼과 여섯 가지라 東너긔 소사 西너긔 드름과 動과
遍과 等遍꼇 마리 다 이에 여희디 아니헝니라 여섯 가
지로 震호민 六識을브터 無名을 드위헤 햏야브료물 表
햏니라 楞嚴에 니르샤디 山河大地 다 無明의 感햏야
딕즌 거시나 本來 오직 햏 眞이라 햏시니 그렝씨 닐오
디 普佛世界라 <1463 법화 1:58⁷-58⁸>

[사진 3]



[사진 3]은 [사진 2]의 오른편인 12장 뒷면 10행의 ‘東涌西沒’의 부분을 가져온 것이다. 이 부분 『법화경언해』 한글 구결은 ‘東涌햏야 西沒와’이고, 언해는 ‘東너긔 소사 西너긔 드름과’이다. 이를 이 문헌에 기입된 음독구결 및 석독 표기와 비교해 보자. 음독구결은 ‘東涌 ヽ 西沒 木’로 되어 있어 차이가 거의 없다. 이 부분의 석독 표기는 ‘東 ヽ 西 涌 西 ヽ 沒’이다. 그러므로 문수사판 『법화경』에 기입된 차자표기 석독을 ‘동녁의셔 소사나 서녁의 가 드름과’로 잠정적으로 번역할 수 있다. 『법화경언해』이 언해와 문수사판 『법화경』의 석독 표기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난다.

(3) 五衆喜瑞

한글 구결: 爾時會中에 比丘와 比丘尼와 優婆塞과 優婆夷와 天과 龍과 夜叉와 乾闥婆와 阿修羅와 迦樓羅와 緊那羅와 摩睺羅伽人非人과 及諸小王과 轉輪聖王과 是諸大衆이 得未曾有햏야 歡喜合掌햏야 一心觀佛햏습더니 <1463 법화 1:59⁸>

[사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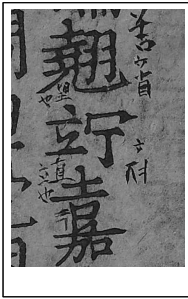


언해: 그햏 會中에 比丘와 比丘尼와 優婆塞과 優婆夷와 天과 龍과 夜叉와 乾闥婆와 阿修羅와 迦樓羅와 緊那羅와 摩睺羅伽 人 非人과 또 諸小王과 轉輪聖王과 이 모든 大衆이 아릭 잇디 아니헝 거슬 得햏야 깃거 合掌햏야 햏 므스므로 부터를 보습더니 <1463 법화 1:59⁸>

[사진 4]는 [사진 2]의 왼편인 13장 앞면 6행을 가져온 것이다. 그 부분의 『법화경언해』는 (3)으로 제시하였다. ‘曾’ 왼쪽에 ‘日來’가¹¹⁾

기입되어 있다. ‘ㄹ來’는 언해 ‘아리’에 해당한다. 이 문헌 경문 한자 ‘曾’과 ‘先’에는 대체로 ‘아리’를 음차로 표기한 ‘ㄹ來’, ‘阿來’, ‘牙來’ 등이 나타난다. 『법화경언해』에서 ‘아리’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사진 5] (4) 한글 구결: 喜觀前瑞^ㅎ습고 翹^ㅎ佇^嘉應^ㅎ니라 <1463 법화 1:59^ㄴ>



언해: 알릿 祥瑞를 짓거 보습고 고초드디여 아름다오신 應을 기드리스오니라 <1463 법화 1:60⁷>

(4)는 왼쪽 [사진 5]의 『법화경언해』 해당 부분이다. 13장 앞면 8행의 ‘翹’와 ‘佇’ 좌우에 각각 음주와 훈주에 해당하는 표기가 기입된 곳이다. ‘翹’의 오른쪽에는 ‘ㅎ?’, ‘佇’의 오른쪽에는 ‘ㅎ저’가 기입되어 있다.¹²⁾ ‘ㅎ’은 음주를 나타내는 부호로 ‘音’의 약체 구결자이다. ‘翹’와 ‘佇’의 왼쪽에 작은 글씨로 써넣은 ‘望也’와 ‘直立也’는 『법화경언해』의 ‘고초드디여’에 해당한다. 두 표기는 『법화경언해』와 다르게 번역된 것으로 생각된다. ‘고초’에 대응하는 ‘望’은 ‘바라-’로, ‘드디여’에 대응하는 ‘直立’은 ‘바로 서다’이다. 이들은 훈으로 그 어형을 나타낸 것이다. ‘佇’의 아래 글자 ‘嘉’ 왼쪽에 작은 글씨로 ‘= 1’이 기입되어 『법화경언해』의 ‘아름다오신’의 ‘신’을 포함한 ‘嘉’의 활용형이 표기되었다.

(5) 한글 구결: 爾時^에 佛이 放眉間白毫相光^ㅎ샤 照東方萬八千世界^ㅎ샤 塵不周遍^ㅎ시니<1463 법화 1:60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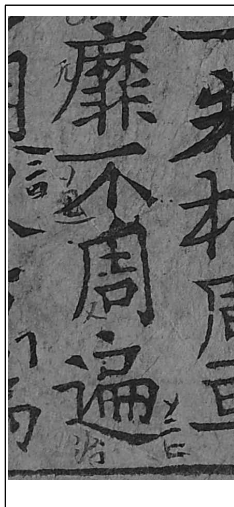
11) ‘ㄹ來’의 ‘來’ ‘ㄹ’와 같은 크기의 ‘來’의 약체자로 적혀 있다. 구결자와 ‘ㄹ’은 ‘아’를 ‘來’는 한자 음차 표기로 ‘리’를 나타내 합하여 ‘아리’를 나타낸 것이다.
 12) ‘翹’의 음은 ‘교’로서 여기에 기입된 글자(+目)의 음이 ‘교’일 가능성이 있지만 판독이 어려워서 음을 확정하여 ‘교’와 관련시키기는 어렵다. 이 문헌에 기입된 음주 표기는 거의 한자로 표기되어 있고, 한글로 표기된 예는 소수로서 독음이 특이한 경우가 있다. 몇 예를 들면 제1권 ‘佇’의 ‘저’, 2권 12장 뒷면 7행의 ‘邁’의 ‘마이’, 제5권 28장 뒷면 8행의 ‘銳’의 ‘예’, 제6권에는 3장 뒷면 6행의 ‘澁’의 ‘습’, 7행의 ‘鰲’의 ‘리’, 8행의 ‘戾’, ‘狹’의 ‘려어’, ‘섭’, 23장 앞면 6행 ‘蕪’의 ‘기’ 등이 있다.

언해: 그뿐 부테 眉間白毫相光을 펴샤 東方萬八千
세계를 비취샤 周遍티 아니흔 디 업게 흐시니
<1463 법화 1:60⁷>

[사진 6]

(6) 한글 구결: 一光이 周亘은 全彰妙體世시니라
白毫는 卽本覺妙明이시고 東方은 爲不動智境이시고
萬八千界는 依根塵識十八界호야 言也호니라 <1463
법화 1:60⁴ -61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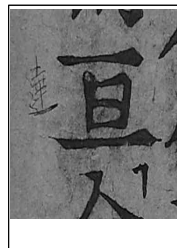
언해: 흐 光明이 두루 스므초문 妙體를 오로 나토
시니라 白毫는 곧 本覺妙明이시고 東方은 不動智境
이시고 萬八千界는 根塵識 十八界를브터 니르니라
<1463 법화 1:60⁴ -61⁷>



[사진 6]은 [사진 2]의 왼편 13장 앞면 9행
의 아래쪽 ‘靡不周遍’ 부분이다. (5)는 『법화경
언해』 해당 부분의 한글 구결과 언해이다. 이중 부정 구문으로 언해는
‘周遍티 아니흔 디 업게’이다. ‘靡’의 왼편에 작은 글씨로 ‘无’는 ‘업-’의
뜻에 해당하는 글자가 기입된 것이고, ‘不’의 왼편에 작은 글씨의 ‘ㄴ 1
ㅅ ㄴ’는 ‘아니흔 디’의 ‘흔 디’로 『법화경언해』와 같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 구문의 본용언에 해당하는 ‘周遍’의 왼쪽에 작은 글씨로 기
입된 ‘治’는 연결어미를 포함한 형태인 ‘周遍티’의 ‘티’를 나타낸 것이
다. ‘호’가 포함된 ‘티’를 나타낸 것으로 다른 곳에서 ‘致’가 쓰인 예도
있다. ‘治’와 ‘致’는 구개음화 이전의 ‘티’ 형태를 표
기한 것으로 보인다.¹³⁾ [사진 6]의 세 번째 글자
‘周’의 글자 내부 왼편 아래 작은 글씨로 기입된 ‘ㄴ’
는 ‘두루’의 제2음절 ‘루’를 나타낸 것이다.

[사진 7]

[사진 7]은 13장 앞면 10행 ‘亘’의 왼쪽에 기입된
‘達’을 보인 것이다. (6)은 『법화경언해』 해당 부분의
한글 구결과 언해이다. ‘亘’의 훈주로서 『법화경언해』



13) ‘디’를 나타내는 ‘ㄷ’와 ‘지’를 나타내는 ‘ㄷ’가 각각 연결어미 ‘ㄷ’(디)로 표상되
고 ‘ㄴ 1 ㅅ ㄴ’(흔가지)의 ‘지’로 표상되어 구분되는 점을 참조하면 구개음화 이전
의 형태를 표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 ‘스므초만’의 어간 ‘스몹-’을 ‘達’로 표기하여 그 뜻을 나타낸 것이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문수사판 『법화경』에는 음독구결, 석독 표기, 음주, 훈주 등 다양한 기능의 목서가 기입되어 있다. 음독구결은 중층적 구조로 2개 이상의 층위를¹⁴⁾ 가지며 『법화경언해』의 음독구결과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고, 생략 표기가 나타난다. 한자 차자표기와 구결자를 이용한 석독 표기는 이 문헌을 우리말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인 것이다. 특히 석독 표기는 음독구결과 결합할 때 완성된 문장으로 번역된다. 따라서 음독의 첫 번째 층위와 관련성을 갖는다. 이 목서는 글자 자형과 먹색 등으로 볼 때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다른 시기에 기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조선 초기 『능엄경』에 기입된 석독 표기와 비슷하다.¹⁵⁾ 문헌 전체에 기입된 구결 등의 목서 표기를 종합하면 표기 전체를 아우르는 원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⁶⁾

특히 조선 초기 『법화경』의 석독 표기는 이 경전이 『능엄경』에 이어진 두 번째 언해 사업 대상이었고, 동시에 『법화경』의 내용이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¹⁷⁾

14) 구결 기입 시기와 관련한 논의는 음독구결과 석독 표기로 구분하여, 음독구결이 간행 연도와 멀지 않은 때에 기입되었고, 석독 표기는 이 음독구결의 기반 위에서 기입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구결 기입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방언 특성이 반영되는 등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표기 수단인 문자로만 보았을 때 석독 표기의 기입 시기를 한글 표기가 대중화되기 이전인 음독구결이 기입된 때와 멀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15) 이 문헌의 기입 구결과 관련하여 원각사본 『능엄경』과 프랑스국립도서관(BnF) 소장 『능엄경』에 기입된 목서는 그 기입 질서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경문 각 행 오른쪽에 음독을 위한 구결이 기입되어 있다. 그리고 석독을 위한 요소는 경문의 왼쪽을 기본으로 글자 내외, 행간 등 다양한 위치에 목서로 기입되어 있다. 이는 경전의 내용을 우리말로 읽기 위한 것이다. 석독은 한문을 우리말로 새겨 읽는다는 점에서 다른 문헌과 유사하지만 그 표기가 한글은 거의 쓰이지 않고, 한자 차자표기로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하정수 2020, 2022가, 2022나 참조).

16) 잠정적으로 차자표기 어휘에서 말음첨기, 연철 표기, 중성 표현 방식, 방언적 요소가 반영되는 규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질서를 파악하여 그 차자표기 체계를 밝히는 것이 향후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17) 이와 관련한 논의는 『법화경』에 기입된 구결을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간행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 南京蘭(2005), 남경란(2008, 2010)의 연구가 있다. 이와 유사한 목서 기입 양상을 보여 주는 고려 말과 조선 초 능엄경에 대한 연구로 프랑스국립도서관(BnF) 소장 『능엄경』에 대한 하정수(2020, 2022나), 정은영

3.2. 차자표기 어휘 분류

3.2.1. 차자표기의 유형

앞에서 문수사판 『법화경』에 기입된 목서의 특징을 음독구결과 석독 표기의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석독 표기는 한자를 이용한 차자표기로 언해에 해당하는 우리말을 표기하고 있다. 이 방식은 표기 문자 측면에서 신라시대 향가의 향찰과 고려시대 자토석독구결과 유사한 점이 있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석독 표기는 한글을 중심으로 하여 구결 등 차자표기가 보완적으로 사용된 혼합 표기이다.¹⁸⁾ 그런데 문수사판 『법화경』에 기입된 석독 표기는 특정 한자의 뜻을 빌려 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 이 방식은 신라시대 향가와 고려시대 자토 석독구결에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문헌의 차자표기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표 1]에서 문수사판 『법화경』 한문 ‘爲’자가 포함된 구문에 다양하게 나타난 목서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표 1]

사진						
위치	1:6~8行	1:1~3行	1:45~6行	1:41~9行	1:46~3行	1:54~1行
법화경 언해	드외야	爲호시니	사므며	爲호시논	爲호	땡ㄹ로매

(2022)가 있다.

18) 프랑스국립도서관(BnF) 소장 『능엄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능엄경』, 월천 조목의 『두시언해』 필사본 등에서 나타나는 표기 특징은 한글이 주이고 필획이 많은 한글을 보완하거나 대신하여 필획이 간단한 구결자나 생획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장경준(2019, 2022)에서는 『법화경』과 『능엄경』에 기입된 어순 부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수사판 『법화경』에는 어순 부호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자 표기	匕	匕	三	성점 ソニ又ナ	ソナ	匕 作
-------	---	---	---	------------	----	--------

[표 1]에서 제시한 ‘爲’의 목서는 그것이 나타내는 바에 따라 4가지로 ‘되다’, ‘삼다’, ‘위하다’, ‘기타 다른 뜻’을 표상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匕’는 ‘化’의 오른쪽 변의 약체자로 ‘化’의 훈을 빌려 쓰는 표기이다. 둘째 ‘三’은 음차 표기로 우리말 ‘삼-’을 나타낸 것이다. 셋째 성점 표기는 우리말 ‘爲_ㅎ다’의 뜻을 나타내는 표기이다. ‘爲’에는 성점만 기입된 예, 성점과 함께 ‘-’의 활용형이 같이 기입된 예, ‘-’의 활용형만 기입된 예가 있다. ‘爲_ㅎ-’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성점이 기입되지 않은 것도 있다. 넷째는 그 밖의 ‘爲’가 ‘作’, ‘成’ ‘是’, ‘一定_ㄱ’ 등의 다른 의미로 번역되는 예이다. 이때 그 뜻을 나타내는 해당 글자가 작게 기입된다. 이러한 4가지 구분 방식은 이 문헌 일곱 권 전체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¹⁹⁾

[표 2]

사진				
	巳	徒然	方	方
위치	1:29b 5행	1:32a 4행	1:35b 10행	1:38a 9행
『법화경 언해』	흐마	홀갓	보야 _ㅎ 로	홀가지로
차자표기	ソナ	ソナ可セ	((_ニ + _戸) _叱), 宝夜又	ソナ可之又

19) 문수사관 『법화경』 제1권 1장 뒷면 2행 5자 ‘爲’에 석독을 나타내는 ‘匕’가 기입되어 있지만, 『법화경언해』는 ‘爲_ㅎ시니’로 되어 있어 번역 양상이 다르다. 일곱 권 전체의 경향은 문수사관 『법화경』의 ‘爲’에 기입된 차자표기는 『법화경언해』의 번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표 2]는 몇몇 부사에 나타나는 차자표기의 예이다. 부사는 주로 문장의 처음에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뒤의 용언을 수식한다. 문수사판 『법화경』 한자 ‘己’, ‘徒然’, ‘方’, ‘同’ 내외부에 목서로 기입된 차자표기와 해당 부분의 『법화경언해』 언해 표기 어휘를 대조하였다. 첫 번째 ‘己’는 언해에서 대체로 ‘흐마’로 번역되고 있으며, 이 문헌에서도 대체로 ‘ㄷ ㅌ’가 기입되었다.²⁰⁾ 두 번째 ‘方’에 기입된 표기는 ‘辺 ㅌ’, ‘宝夜 ㅌ’²¹⁾ 각각 ‘ㄱ’과 ‘보야호로’로 번역되는 예이다. 세 번째 ‘徒然’에 기입된 ‘ㄷ ㅌ ㅌ ㅌ’은 구결자로 ‘흔갓’을 나타낸 것이다. 문수사판 『법화경』의 경문 한자 ‘徒’와 ‘顯’이 ‘흔갓’의 뜻으로 번역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기이다. 네 번째 ‘同’에는 구결자 ‘ㄷ ㅌ ㅌ ㅌ ㅌ’가 목서로 기입되어 있다. 이는 『법화경언해』의 ‘흔가지로’에 대응된다. 이 ‘ㄷ ㅌ ㅌ ㅌ ㅌ’는 이 문헌의 ‘一’, ‘同’의 글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ㄷ ㅌ ㅌ ㅌ ㅌ’로만 기입되는 예도 있다. 위의 네 글자에 기입된 차자표기는 ‘辺 ㅌ’을 제외하고 모두 한자의 소리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것이다.

[표 1]과 [표 2]에서 문수사판 『법화경』에 목서로 기입된 차자표기를 ‘爲’, ‘己’, ‘徒然’, ‘方’, ‘同’ 글자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이 차자표기는 음절의 일부를 나타낸 것으로, ‘徒然’의 ‘ㄱ’과 ‘同’의 ‘흔가지’에서 모음 ‘·’와 ‘ㅌ’가 서로 다르게 표기된 것을 알 수 있다.²²⁾

20) 문수사판 『법화경』의 ‘己’에 『법화경언해』와 달리 ‘發 ㅌ ㅌ’가 기입된 두 예가 있다. 이 예는 『법화경언해』와 달리 ‘발씨’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 예가 ‘발씨’를 나타냈다면 중세국어 시기 모음 ‘ㅌ’와 ‘ㅌ’의 음가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ㅌ’를 ‘ㅌ’로 판독하면 각자병서가 사용되지 않은 ‘발씨’에 해당하는 어형을 표상한 것이 된다.

21) ‘辺’에 해당하는 글자는 ‘刀’를 ‘戶’로 바꾼 형태의 글자로 이 연구에서는 잠정적으로 ‘邊’의 약자인 ‘辺’을 사용한다. ‘宝夜 ㅌ’는 『법화경언해』의 ‘보야호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宝夜 ㅌ’로 나타나는 경우는 ‘ㄷ’가 생략된 표기로 보았다.

22) 이러한 표기 차이는 문수사판 『법화경』의 차자표기가 기입된 시기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는 음가 소멸 시기가 제1음절과 제2음절 이하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권차에서 『법화경언해』 언해 ‘ㄱㅌ니’에 해당하는 ‘潛’의 차자표기가 ‘ㅌ ㅌ ㅌ’로 나타난 예가 있다. 이 예는 ‘ㅌ’와 ‘ㅌ’가 ‘가’와 ‘마’로 나타나 앞의 예와 서로 배타적이므로 모음 ‘ㅌ’와 ‘·’의 차자표기에 대한 어휘별 정밀 분석과 방언의 모음 체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2.2. 차자표기 어휘의 차자 방식

앞 절에서는 차자표기 어휘가 경문에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차자의 방식 즉 차자표기 어휘를²³⁾ 한자의 음과 훈을 어떻게 이용하였는가에 따라 구분하고자 한다. 南豐鉉(1981, 1999)에서는 차자표기법 즉 한자 차용법은 한자의 음(音)과 훈(訓) 중 어느 것을 차용하느냐에 따라 ‘음’과 ‘훈’으로 나뉘고, 또 이들을 한자의 본뜻에 맞게 사용하느냐, 본뜻을 버리고 표음적(表音的)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독(讀)’과 ‘가(假)’로 나누고, 그 방법에 따라 음독자(音讀字), 음가자(音假字), 훈독자(訓讀字), 훈가자(訓假字) 넷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음과 훈 중 어느 것을 차용하느냐에 따라 음차와 훈차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훈차는 한자를 훈으로 읽고 그 본뜻도 살려서 차용하는 훈독, 한자를 훈으로 읽되 그 뜻은 버리고 표음자만으로 차용한 차자인 훈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분류 방식이 이 문헌에 표기된 차자표기의 성격을 잘 보여 주기 때문이다.²⁴⁾

이 문헌에 음차, 훈독, 훈가 세 가지 유형에 따라 목서로 기입된 차자표기를 분류하고자 한다.²⁵⁾ 차자표기가 낱말의 음절 전체를 모두 나타낸 예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일부분을 나타낸 예를 보완적으로 논의에 이용한다. 예를 들어 ‘猶’에 ‘如’, ‘ㄴ’, ‘ㄹ’ 등 3종류 이상의 목서가 기입

23) 朴鎭浩(2008: 338)에서는 한글 창제 이전의 차자표기 자료의 경우, 그 차자표기는 한글 표기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음성언어의 특정 언어표현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겠지만, 문법사 연구에서는 이 차자표기를 한글표기와 연결지어 이해하는 것이 편리하고, 차자표기 자료의 해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로 이해되어 왔다고 보았다. 鄭在永(2014)에서는 구결을 그 도구에 따라 각필과 목서, 문자에 따라 자토와 점토, 독법에 따라 석독과 음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24) 음차 표기인 음독과 음가는 둘 다 음을 읽는다는 공통점이 있고, 한자의 본뜻을 살리느냐 버리느냐에 따라 음독과 음가로 구분하는데 이 둘의 구분이 어렵고, 특히 구결자로 쓰이는 약체자들은 음가자와 동일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음독과 음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25) 지면의 한계와 논의의 편의를 위해 권1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다른 권차에 있는 예를 보완적으로 제시한다.

되어 있고, 이들은 각각 『법화경언해』 언해 부분의 ‘근-’, ‘오히려’, ‘순직’에 해당하는 요소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寧’에 기입된 ‘此ㄷㅏㄴ’의 예는 당시 ‘출하리’에 해당하는 요소의 음절 전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후자의 예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3.2.2.1. 음차 표기 어휘

음차는 ‘爲’의 뜻이 ‘삼다’일 때 한자 ‘三’의 약체 구결자 ‘ㅅ’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나타낸 것이다. 이 문헌에 나타난 예는 다음과 같다. 이때 모든 요소가 모두 음차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3]은 문수사관 『법화경』 제1권에서 경문 한문 좌우 등에 기입된 차자표기 어휘 중 음차로 파악한 것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²⁶⁾

[표 3] 음차 표기 어휘(제1권)

순번	차자표기 관독	경문	장차:행차:자차	순번	차자표기 관독	경문	장차:행차:자차
1	全次ㅅ	故	1ㄴ:2 5자	51	ㅅㄴㅏㅓ	止	42ㄴ:1 8자
2	ㅅㅏㅓ	既	1ㄴ:2 18자	52	ㅅㅏㅓ	已	42ㄴ:5 5자
3	ㅅㅏㅓ	特	2ㄴ:1 10자	53	ㅅㅏㅓ	已	42ㄴ:5 13자
4	ㅅㅏㅓ	稽	3ㅏ:1 10자	54	ㅅㅏㅓ	退	42ㄴ:8 9자
5	依ㅅㅏㅓ	訂	3ㅏ:1 14자	55	ㅅㅏㅓㅏㅓ	然	42ㄴ:10 6자
6	ㅏㅓㅏ	科	3ㅏ:7 13자	56	正成ㅅ	疑	43ㄴ:1 8자
7	安賊	且	3ㅏ:10 16자	57	敬戒	筋	43ㄴ:1 11자
8	每段	設	3ㄴ:1 9자	58	ㅅㅏㅓㅏㅓ	分	46ㄴ:3 1자

26) 기초 관독 자료는 아래의 표와 같이 관독 글자에 해당 구결자가 있는 경우 구결자를 입력하였고, 구결자가 없는 경우 한자 글자를 그대로 입력하였다. 차자표기를 나타내는 경우 구결자로 표현하는 것이 기입된 글자를 표현하는 데 적절하지만 구결자의 수가 50여 개로 한정적이고, 이 문헌에 등장하는 차자표기 한자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입력 초기 잠정 목록을 관독이 분명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절반 정도로 그 분량이 줄어들었다. 전체적인 관독 작업이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동일 의미의 한자에 기입된 유사 형태의 난해자 등을 상호 검토하면 관독 정확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관독 분량도 많아질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관독이 확실한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차자 표기	원문	원문 위치	언해 구결	언해	비고
ㅏ	遍	서1ㄴ:8 3자	不輕之遍記와	不輕入 다 記호삼과(서22ㄴ:5)	음차
ㅏ	凡	서1ㄴ:9 5자	凡以是也라	다 일로 호시니라(서22ㄴ:8)	음차
文(?)ㅏㅓ	竊	서1ㄴ:10 7자	竊觀一期之問答컨댄	그스기 보컨댄(서22ㄴ:12)	훈/음
~	~	~	~	~	~

9	木川	懸	4ㄴ:9 9자	59	个知	已	46ㄴ:4 14자
10	ム代	必	4ㄴ:9 19자	60	可ㄱ 1 女	支	46ㄴ:8 18자
11	月只	必	5ㄴ:1 6자	61	祖又勿乙	減	47ㄴ:1 7자
12	九台如	必	5ㄴ:10 12자	62	祖、入	減	47ㄴ:2 11자
13	戒ニ 1 才乙	處	5ㄴ:6 20자	63	盛 1	劇	47ㄴ:2 19자
14	ッヶ	已	6ㄴ:2 18자	64	ッ 1 可	若	47ㄴ:5 4자
15	伊大	善	6ㄴ:6 3자	65	我只 ㄴ	惜	48ㄴ:10 2자
16	伊大	能	7ㄴ:4 3자	66	虛勿乙	瑕疵	48ㄴ:10 4자
17	九泰 ㄴ	必	7ㄴ:6 6자	67	オ 才 乙 口	豪	48ㄴ:4 4자
18	戒	在	8ㄴ:3 16자	68	ム 巴 口	懦	48ㄴ:4 15자
19	尸來	曾	13ㄴ:6 13자	69	隱 ㄴ	文	48ㄴ:5 11자
20	豆又	經	18ㄴ:3 11자	70	勿乙	過	48ㄴ:5 12자
21	發乙世	已	23ㄴ:1 9자	71	外又	孤	49ㄴ:7 15자
22	又 1 介	玩	23ㄴ:3 16자	72	辺 叱	纒	50ㄴ:9 9자
23	一丁号	斷	27ㄴ:7 15자	73	我 比 下 1	幾乎	50ㄴ:2 6자
24	早 比 毛 乙 二 ㄴ	略	28ㄴ:5 7자	74	其 乙 古 月 乙	妨	50ㄴ:8 12자
25	木早又	尋	29ㄴ:4 11자	75	午 乙 致	可	51ㄴ: 10자
26	ッヶ	既	28ㄴ:10 3자	76	所 其 才	欺誑	51ㄴ:1 19자
27	西入乙	惱	29ㄴ:9 5자	77	剋 ㄴ 1	至	51ㄴ:4 7자
28	前次乙	由	30ㄴ:8 18자	78	接 ㄴ 二 又 1	待	51ㄴ:4 8자
29	蚤蚤	默	31ㄴ:5 13자	79	我幾	慳	51ㄴ:6 14자
30	个又	可	31ㄴ:7 10자	80	所 只 才	欺	51ㄴ:7 18자
31	ッヶ	已	36ㄴ:8 4자	81	於 才 又 勿 乙	勝	51ㄴ:8 13자
32	已 已 乙	堪	36ㄴ:8 20자	82	ッヶ	已	51ㄴ:9 2자
33	麻 ㄴ 全	止	36ㄴ:9 6자	83	ッ 1 可	若	51ㄴ:9 15자
34	ム ㄴ 1 ㄴ、ㄴ ㄴ	不	37ㄴ:3 14자	84	非 已 又 午 ㄴ	諂	51ㄴ:10 6자
35	ㄴ 1 可 之 又	同	38ㄴ:9 7자	85	所 只 才	誑	51ㄴ:10 7자
36	ム代	要	38ㄴ:2 6자	86	ㄴ 1 可 之 又	同	51ㄴ:7 6자
37	ッヶ	已	39ㄴ:7 3자	87	非 已 又 午 ㄴ	諂	52ㄴ:6 16자
38	戒 入 ㄴ 勿 乙	默	39ㄴ:5 14자	88	文 叱	強	52ㄴ:8 17자
39	我 比 何 1 毛 尸 乙	須而	40ㄴ:10 16자	89	小古	微	52ㄴ:2 13자
40	ッ 1 可	若	40ㄴ:5 14자	90	个知	已	52ㄴ:7 12자
41	分別 ㄴ 入 1	慮	41ㄴ:9 5자	91	ッヶ	已	53ㄴ:8 17자
42	分別 ㄴ 乙	恤	41ㄴ:9 16자	92	之 乙 入 / 降 ㄴ 个 ㄴ	伏	54ㄴ:6 5자
43	ム ㄴ 又 1	未	41ㄴ:10 6자	93	ッヶ	已	54ㄴ:8 5자
44	个 ㄴ	止	41ㄴ:10 18자	94	宝也 又	方	58ㄴ:9 2자
45	牙來	曾	41ㄴ:3 15자	95	此 乙 下 ㄴ	寧	59ㄴ:1 12자
46	蚤 1 ㄴ 1 才 ㄴ、	切	41ㄴ:10 6자	96	ㄴ 初	尋	59ㄴ:3 1자
47	个 ㄴ 午	不	42ㄴ:4 17자	97	个 祖 勿 乙	合	59ㄴ:10 14자
48	个知	得	42ㄴ:6 16자	98	安 1 此 1	所	60ㄴ:1 8자
49	許 勿 ㄴ	失	42ㄴ:10 16자	99	ㄴ 1 可 七	徒然	32ㄴ:4 6자
50	尸 比	不	42ㄴ:1 6자	100	1 毛 1	他	45ㄴ:2 20자

음차 표기자는 한자의 독음이 그대로 쓰이고 구결자는 대표음을 중심으로 변이음을 적용하여 판독하고 번역할 수 있다. [표 3]에 있는 차자표기 가운데 앞에서 논의한 ‘ッヶ’, ‘宝也又’, ‘辺叱’, ‘ㄴ 1 可 七’, ‘ㄴ 1 可 之 又’ 등을 제외하고, 두 번 이상 나타난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한자 ‘故’에는 뜻을 나타내는 ‘全次 ㄱ’가 음차 표기되었다. 이 형태는 ‘前次 ㄷ’의 예가 있으므로 동일한 어형을 서로 다른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둘째 ‘必’에 기입된 음차 차자표기는 ‘ム ㄱ’, ‘九台如’, ‘九泰 ㄱ’가 나타난다. 『법화경언해』 언해의 ‘모로매’와 같이 해석된 예에는 뒷부분 ‘ㄱ ㄷ’가 기입되어 나타난다. ‘ム ㄱ’는 ‘모로매’와 첫 음절이 같은 예로 추측할 뿐 그 어형 전체를 알기 어렵다. ‘ム ㄱ’는 ‘반드기’의 뒷부분 두 음절을 나타낸 것이고, ‘九台如’, ‘九泰 ㄱ’은 모두 ‘구퇴여’로 음독되는 형태를 표기한 것이다. 셋째 ‘있다’의 뜻을 가지는 ‘有’, ‘在’, ‘處’ 등에는 ‘戒 = 1 ㄱ ㄷ’와 같이 ‘戒’로 시작하는 차자가 기입되어 있다. 이는 ‘겨시-’ 또는 ‘겨-’에 해당하는 차자 표기가 문수사판 『법화경』에서는 『법화경언해』의 언해 부분에서 ‘겨시-’와 다르게 번역된 글자에 이 차자 표기가 기입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유사한 의미의 ‘有’, ‘在’, ‘處’에 대하여 『법화경언해』와 문수사판 『법화경』의 번역이 달랐음을 의미한다. 넷째 ‘善’의 뜻을 한문에는 ‘伊 ㄱ’ 또는 ‘尺 ㄷ’이 기입되어 있다. 『법화경언해』의 언해 ‘이대’에 해당되는데 이 문헌의 다른 권차에 ‘尺 ㄷ’로 ‘잘’을 해독할 수 있는 예가 나타난다. 이 두 어형은 동의어일 수 있다. 이 밖에 [표 3]에 제시된 다른 예들은 『법화경언해』의 언해 부분과 같은 어휘를 나타낸 것도 있고, 전혀 다른 어휘를 나타낸 것도 있다.

[표 3]에서 특기할 만한 예로 ‘依 ㄱ 1’, ‘安 1 此 1’, ‘ㄱ ㄷ ㄷ’이 있다. ‘依 ㄱ 1’에서 일반적인 ‘依’는 훈독 표기로 한자 ‘由’, ‘據’ 등에 기입되어 ‘블-’에 해당하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 쓰였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법화경언해』의 ‘議論 ㄱ야’의 ‘議論’을 음차로 나타낸 것이다. ‘安 1 此 1’은 『법화경언해』에 대응하는 어휘가 없으나 문헌의 언해 경향으로 볼 때 ‘안즌’ 또는 ‘안춘’으로 번역되어 ‘있는’의 뜻을 나타내는 음차 표기이다. ‘ㄱ ㄷ ㄷ’은 한문 ‘惱’의 뜻을 음독한 것으로 『법화경언해』의 ‘설위홀씨’에 해당하는 것이다. 주로 훈가자로 쓰이는 ‘ㄱ’이 음차자로 쓰여 ‘입’으로 읽혀 ‘*설블’의 ‘ㅂ’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ㅂ’이 ‘오/우’로 변화하는 것이 반영되지 않은 표기이다. 이와 유사한 예로 한자 ‘孺’에 대응하는 ‘스 ㄱ ㄱ’를 참조할 수 있다. ‘보드랍고’의 ‘랍고’를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ㅂ’ 불규칙 어휘와 관련된 예로 제2권의 경문 ‘麗’(26장 뒷면 10행 6자)에 기입된 ‘ㄹ不ㄱ’과 ‘昧’(28장 앞면 5행 11자)에 기입된 ‘ㄹ不ㄱ乙’이 주목할 만하다. ‘ㄹ不ㄱ’이 기입된 글자는 『법화경언해』 언해 ‘고운’에 해당하고, ‘ㄹ不ㄱ乙’이 기입된 글자는 ‘어드울’에 해당한다. 그러나 문수사관 『법화경』에서는 두 글자 모두 초성에 ‘ㅂ’을 가진 ‘不’로 음차 표기가 이루어져 있다. 이 문헌의 음차 표기의 특징 중 하나는 ‘ㅂ’ 불규칙이 반영되지 않은 표기를 보여 준다는 점이다. 이는 일부 남부 방언이 갖고 있는 ‘ㅂ’ 불규칙 현상과 유사하다.

3.2.2.2. 훈독 표기 어휘

훈독 표기는 예를 들어 ‘爲’의 뜻이 ‘되다’일 때 한자 ‘化’의 약체자 ‘ㄷ’를 이용하여 ‘化’의 뜻을 나타내는 당시의 ‘ㄷ되다’에 해당하는 우리 말을 나타내는 차자표기 방식이다. 문수사관 『법화경』의 제1권의 나타난 훈독 표기 예를 [표 4]로 정리하였다. 훈독 표기 예에는 훈독으로만 된 것뿐만 아니라 훈독과 음차가 같이 있는 것이 포함되었다.

[표 4] 훈독 표기 어휘(제1권)

순번	차자표기 판독	경문	장차:행차:자차	순번	차자표기 판독	경문	장차:행차:자차
1	无示ㄴ	虛	2ㄴ:2 13자	13	開ㄴ乙ㄱㄴ	啓	43ㄴ:1 9자
2	色出ㄴ	煥	2ㄴ:5 17자	14	問ㄹ	徵	44ㄴ:7 2자
3	小ㄴ	稍	4ㄴ:3 20자	15	如ㄱ	等	44ㄴ:1 12자
4	ㄷㄱㄴ	誚	4ㄴ:4 6자	16	會ㄴ	遘	46ㄴ:10 20자
5	依ㄴㄱㄴ	據	5ㄴ:6 16자	17	知勿乙	了	48ㄴ:1 5자
6	成勿乙	濟	16ㄴ:8 4자	18	阻勿乙	去	48ㄴ:2 6자
7	注ㄴㄱㄴ	括	36ㄴ:10 13자	19	進ㄱ	卽	54ㄴ:1 3자
8	謂ㄱㄴ	擬	36ㄴ:10 14자	20	明ㄴ勿乙	闡	58ㄴ:6 3자
9	進ㄱ	卽	37ㄴ:1 14자	21	知外	喻	59ㄴ:5 14자
10	退바ㄴ	斥	38ㄴ:5 2자				
11	知ㄱ	諭	41ㄴ:10 7자	22	宝ㄴ奉	式	46ㄴ:5 7자
12	好ㄴ	佳	42ㄴ:8 11자	23	時及ㄴㄴ間	造次	56ㄴ:6 17자

[표 4]에서 첫 번째로 제시된 ‘无示ㄴ’은 ‘없다’의 어근 부분을 한자 ‘无’로 혼독하고 다음의 ‘=’은 연결된 ‘업시’의 ‘시’를 음차하여 기입한 것이다. ‘ㄴ’은 ‘시’의 모음 ‘ㅣ’를 중복 표기한 것으로 ‘无示ㄴ’은 ‘업시’ 전체 음절을 나타낸 차자표기이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법화경언해』의 언해는 ‘속절업시’로 ‘업시’가 동일하다. 두 번째로 제시된 ‘色出ㄴ’은 한자 ‘色’과 ‘出’이 모두 혼을 빌려 ‘빛나’를 나타내고 ‘ㄴ’은 ‘내’의 하향 이중모음 ‘ㅣ’를 나타낸 것이다. 『법화경언해』 해당 부분의 언해는 ‘빛내’이다. 이와 같이 혼독으로 표기된 부분은 주로 어근을 나타내는 앞부분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전체 23개 중 2개를 제외한 21개의 예가 이러한 방식으로 앞 글자가 혼독 표기로 그 뒤의 글자를 음차 표기의 방식으로 나타냈다.

혼독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것으로 ‘叱ㄴ’, ‘注ㄴㄴ’, ‘進ㅂ’, ‘退바드’, ‘阻勿乙’를 살펴보자. 첫째 ‘叱ㄴ’은 구결자와 같은 ‘叱’이 원래 글자 ‘叱’이 혼으로 혼독 표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叱’은 받침 ‘ㅅ’을 음차 표기한다. 뒷부분의 ‘ㄴ’은 어미에 해당하는 부분을 두 글자로 음차 표기한 것이다. ‘ㅂ’의 모음 ‘ㅣ’를 중복 표기한 것이다. ‘誚’에 대응하는 『법화경언해』의 언해는 ‘구짓디’이다. 둘째 ‘注ㄴㄴ’은 한자 ‘括’에 대한 것으로 ‘注’는 ‘쁘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혼독한 것이고 뒷부분은 ‘-리혀’를 음차한 것이다.²⁷⁾ ‘ㄴ’은 이 문헌에서 음 ‘리’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려’가 2음절로 발음될 때 첫 번째 음절을 표기한 것이고, ‘ㄴ’은 ‘혀’를 음차한 것으로 『법화경언해』의 언해 ‘쁘리’와 번역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進ㅂ’는 『법화경언해』 언해에서 ‘나사가’에 해당되는 표기로 다른 권차에서 반복적으로 보인다. ‘進’은 혼독으로서 ‘나사’에 해당하는데 ‘ㅂ’는 음차로 ‘거/가’를 나타낼 수 있고, ‘去’의 혼차 표기가 될 수도 있다. 이 문헌의 다른 권차에서 해당 부분에서 ‘進去’ 표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넷째 ‘退바드’는 한문 차자 표기에 한글 표기가 결합한 예이다. 『법화경언해』의 언해는 ‘믈리와드샤’로 경전의 한문 ‘斥’에 대한 번역이다. ‘退’는 혼독으로서 ‘믈리’를 표

27) 다른 권차에 ‘주다’의 뜻으로 쓰인 경문 ‘與’에 차자표기 ‘注’를 포함한 형태가 자주 나타난다. 따라서 ‘注’는 ‘주’를 음차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기한 것이고, 한글 부분 ‘바드’는 ‘와다’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수사관 『법화경』의 차자표기 어휘 중에는 15세기 초 ‘빙’으로 표기되었다가 『법화경언해』에서 ‘오/우’로 바뀌어 표기된 예들의 음차 표기가 ‘오/우’로 반영되지 않고, ‘ㅂ’이 있는 것으로 표기된 것이 있다. 이 예는 그중에서도 ‘ㅂ’이 한글로 표기된 점이 흥미롭다. 문수사관 『법화경』에는 한글 표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阻勿乙’는 경문 ‘去’에 기입되는 차자표기로 『법화경언해』의 언해 ‘병으로몰’로 해당한다. 혼독 표기인 ‘阻’은 ‘병을다’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표 4]의 오른쪽 아래 음영 표시된 ‘宝 1 奉’과 ‘時及 ㄷ 1 間’ 두 예를 살펴보자. 이 예들은 혼독 표기가 음차 표기 뒤에 나타난 것이다. 먼저 ‘宝 1 奉’은 ‘本’의 음에 해당하는 ‘宝 1’이 음차 표기되어 있고, ‘奉’은 혼독으로서 ‘받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예는 ‘본받다’의 의미로 해독할 수 있는데 『법화경언해』의 언해 ‘法바드샷다’에 대응된다. 한자 ‘式’에 대하여 문수사관 『법화경』과 『법화경언해』이 서로 다른 번역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둘째 ‘時及 ㄷ 1 間’는 『법화경언해』 언해 ‘時急흔 스 시라’에 해당한다. 앞부분의 ‘時急흔’을 그대로 음차로 나타낸 것으로 특히 ‘及’은 한자 ‘時急’의 두 번째 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 글자 ‘間’는 ‘사이’로 해독하여 ‘시급한 사이’의 뜻을 나타내는 수식 구조를 이루고 있다.

혼독 표기의 예를 살펴본 결과 혼독 표기는 음차 표기와 혼합되어 대체적으로 앞에 표기된 글자를 혼으로 읽고 뒷부분은 음차 표기로 혼독 표기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이는 해당 어휘를 이해하기 쉽도록 어미와 접사 등 문법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향가의 표기 방식인 훈주음종(訓主音從) 원칙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3.2.2.3. 훈가 표기 어휘

문수사관 『법화경』 1권에 나타나는 훈가 표기 차자를 7례 3가지 유형을 [표 5]로 정리하였다.

[표 5] 훈가 표기 어휘(제1권)

순번	차자표기 관독	경문	장차:행차:자차	유형 구분
1	尽走	極	16ㄱ:1 4자	첫 번째 유형
2	尽走乙	窮	16ㄱ:1 8자	
3	爲奉	尊	21ㄴ:2 3자	두 번째 유형
4	爲奉乙 1	奉	28ㄴ:8 4자	
5	加千	益	34ㄴ:9 6자	세 번째 유형
6	加千	逾	48ㄱ:2 6자	
7	加千ㄱ	益	52ㄴ:5 8자	

[표 5]의 첫 번째 유형 ‘尽走’과 ‘尽走乙’은 『법화경언해』 언해 부분의 ‘다든’과 ‘다드른’에 해당한다. 첫 번째 글자 ‘尽’의 훈 ‘다’를 빌리고, 두 번째 글자 ‘走’의 훈 ‘든’을 빌려 앞의 ‘다’와 합하여 ‘다든’을 표기한 것이다. 2권 24장 앞면 3행에 ‘極’에 기입된 ‘1 走乙 1’도 ‘다든’을 나타내는데 ‘走’의 훈 ‘든’을 빌린 것이 동일하다. 두 번째 유형 ‘爲奉’, ‘爲奉乙 1’은 『법화경언해』에서 전자는 ‘尊히 너기스’와 후자는 ‘위왈줍’으로 서로 다르게 언해되었지만 이 문헌에서는 같은 번역을 보여 준다. 특히 ‘위왈-’의 ‘왈’ 부분이 ‘奉’의 훈 ‘받’으로 되어 있어 ‘ㅂ’과 ‘오/우’의 관계를 보여 준다. 앞 절에서 논의한 ‘退바드’의 ‘ㅂ’과 동일한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세 번째 유형 ‘加千’은 앞 글자 ‘加’의 훈 ‘더으-’의 ‘더’를 빌린 대표적인 훈가자이다. 마지막 예인 ‘加千ㄱ’은 한글 ‘ㄱ’으로 말음 표기를 더하여 ‘더욱’을 나타낸 것이다. ‘더욱’의 형태는 『석보상절』, 『번역소학』, 『두시언해』 등 15~17세기 문헌에 나타난다.

음차 표기, 훈독 표기, 훈가 표기를 종합해 보면 음차는 대표음을 중심으로 한자 번역어 단어에 대응하여 하나의 차자표기가 두 가지 음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다. 훈독 표기는 훈주음종으로 훈독과 음차가 함께 표기된 경우는 대체로 실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훈독으로 나타나고, 단어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어미와 조사와 같은 문법적인 요소에는 음차가 나타나는 예가 많았다. 이는 김완진(1980)에서 제시한 훈주음종의 원리로 표기법을 분석한 향찰의 표기법과 유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3. 부정 구문의 차자표기 어휘

문수사판 『법화경』의 경문에서 한문 ‘不’, ‘無’, ‘非’, ‘靡’, ‘止’, ‘已’ 등이 포함된 부정 구문에는 대체로 ‘ㄹ ㅍ’, ‘ㅅ’, ‘ㅈ’ 등의 부정소나 금지를 나타내는 어휘를 나타내는 훈독 표기가 기입되어 있다. 예문을 통해서 문헌의 부정 구문에 나타난 차자표기를 살펴보자.

(7) 문수사판 『법화경』 제1권 37장 앞면 3행 12자-16자(밑줄 필자)

차자표기: ㄹ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한글구결: 力所不堪者는 <1463 법화 1:153<

언해: 힘이 이기지 못하니까 <1463 법화 1:153>

(8) 문수사판 『법화경』 제1권 41장 앞면 4행 7자-4행 11자

차자표기: ㄹ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한글구결: 惟說願勿慮호쇼셔 <1463 법화 1:167>

언해: 오직 니르샤 願호스오되 分別 마르쇼셔 <1463 법화 1:167>

(9) 문수사판 『법화경』 제2권 46장 뒷면 1행 6자-8자

차자표기: ㄹ ㅍ, ㅈ ㅍ ㅍ

한글구결: 而不制止호시니라 <1463 법화 1:172>

언해: 말이디 아니호시니라 <1463 법화 1:172>

(7)은 언해에서 ‘못’으로 나타나는 능력 부정 구문으로 『법화경언해』와는 뜻은 유사하지만 문장 구조는 다르다. (8)은 언해에서 ‘마르쇼셔’로 금지를 나타내는 구문이지만 여기에서는 ‘오직 니르실뿐이언딩’으로 뒤에 필수적으로 부정적 표현이 따라오는 구조이다. 따라서 ‘勿’에 부정을 나타내는 석독을 위한 차자표기가 기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차자표기가 우연히 표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9)는 금지를 나타내는 말과 의도 부정이 함께 나타나는 이중 부정 구문이다. ‘不’에 (7)과 달리 ‘못’이 아닌 ‘아니’를 나타내는 ‘ㄹ ㅍ’가 기입되어 있고, ‘止’

에는 금지를 표현한 ‘ㄱ ㄴ ㅈ’가 기입되어 언해의 ‘말이다’와 짝을 이루고 있다.

(10) 문수사판 『법화경』 제2권 12장 앞면 4행 20자-5행 1자

차자표기: ㄴ ㅈ ㅈ 加 ㅈ ㅈ 乙, ㅈ

한글구결: 聞所未聞ᄃᆞᆫ 습고 <1463 법화 2:50^ㄴ -51^ㅈ>

언해: 물 듣줍더닐 듣줍고 <1463 법화 2:50^ㄴ -51^ㅈ>

(11) 문수사판 『법화경』 제2권 12장 뒷면 10행 10자

차자표기: 乙, 乙 乙 加 ㅍ

한글구결: 不言諸佛 世尊이 <1463 법화 2:52^ㄱ -52^ㄴ>

언해: 니르디 아니터녀 <1463 법화 2:52^ㄱ -52^ㄴ>

(10)과 (11)은 제2권에 있는 부정 구문의 예이다. (10)은 문장 구조가 『법화경언해』의 ‘물 듣줍더닐 듣줍고’와 달리 ‘듣디 못ᄃᆞ야던 걸’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장형 부정 구문으로 판독된다. (11) 구문은 『법화경언해』는 장형 부정인 ‘니르디 아니터녀’인데 문수사판 『법화경』에 기입된 차자표기는 ‘不’에 ‘乙’가 기입되어 ‘아니’를 표기하였고, ‘言’에 음차 표기 ‘乙 乙 加 ㅍ’가 기입되어 낱말 전체를 표기한 것이다. 차자표기 앞부분의 ‘乙 乙’은 ‘說’의 뜻에 해당하는 어간 ‘닐-’을 표기한 것이고, 뒷부분 ‘加 ㅍ’는 ‘더’를 표기한 훈가자와 의문 어미 ‘녀’를 표기한 ‘ㅍ’로 분석할 수 있다. 해석하면 ‘아니 닐터녀’로 단형 부정 구문이 된다. 이와 같이 문수사판 『법화경』의 부정 구문에 기입된 차자표기로 표현된 번역은 『법화경언해』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며, 대체로 단형 부정보다는 장형 부정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부정 구문에서 나타나는 차자표기 형태를 통해 『법화경언해』와 문수사판 『법화경』의 번역 양상이 단형과 장형으로 구분되어 부정 구문의 구조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4. 결론

원각사 소장 문수사판 『법화경』은 성달생이 글씨를 쓴 1405년 안심사판 『법화경』의 복각본으로 1417년 간기, 각수명, 시주질 등이 남아 있고, 다양한 목서가 기입되어 있다. 이 연구는 문수사판 『법화경』의 서지사항과 기입 목서를 소개하고, 이 문헌의 차자표기 어휘를 기입 특징, 차자 방식, 부정 구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차자표기 어휘를 음차, 훈독, 훈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이 문헌의 서지사항을 형태 서지와 내용 서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여말 선초 『법화경』의 유통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였다. 이 문헌은 1417년 고창 문수사에 간행된 판본으로 경문 좌우와 난외에 구결과 한자 등이 목서로 기입되어 있다. 이 문헌에 기입된 구결자 등의 목서를 그 기능과 표기 양상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경문 오른쪽에 기입된 음독구결은 간경도감본 『법화경언해』의 한글 구결과 전체적으로 유사하였지만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헌의 음독구결은 『법화경언해』와 계통이 다른 음독구결을 표상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한글 표기는 투박한 필체로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기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주로 어휘의 해석과 독음 관련 음주들로 특별한 한글 표기 원칙이 드러나지 않았다.

제3장에서는 고창 문수사 간행 『법화경』의 차자표기 어휘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한글이 아닌 한문 차자표기로 어휘를 표기하였다. 이는 향찰이나 구결 표기의 전통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둘째 경문에 기입된 차자표기 훈독은 『법화경언해』와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 훈독으로 읽은 어휘는 당시 남부 방언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이 문헌의 부정 구문에 기입된 차자표기는 『법화경언해』와 달리 장형 부정이 주로 사용되는 경향성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논의를 종합하면 문수사판 『법화경』의 한자 차자표기로 기입된 어휘 표기는 『법화경언해』의 번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방언형과 변이형 등을 반영하고 있었다. 어휘 차자표기는 경전을 읽고 해석하는 수단으로 발달해 온 석독구결의 전통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러므

로 이 문헌에 기입된 차자표기 어휘는 차자표기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일사본 『법화경』 등 조선 초기 음독구결 자료 및 『법화경언해』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고대 한국어부터 현대 한국어까지 이어지는 한국어의 연속성과 동 시대의 언어에 나타나는 공시적 차별성을 내포한 중세 한국어에 대한 새로운 자료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향가와 이두를 포함한 차자표기 전반에 대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글 창제를 전후한 시기의 언어 자료를 보완할 수 있다.

이 논의는 방대한 정보량을 가진 7권 전체 자료 가운데 효율적 논의를 위해 제1권의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결과이다. 따라서 음독구결자에 대한 내용, 음주 표시의 한자음, 음운현상에 대한 정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자료를 소개하고 기입 목서 중 한자 차자표기 어휘의 특성 약간을 밝혔다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Abstract]

**A study on written characters as the notation
that borrowed Chinese characters of the
Materials of Beophwagyeong(法華經) printed in
Munsusa(文殊寺)**

Ha Jeongsoo(Dongguk Univers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nalyzed by reading the subscripted vocabulary data written in the Beophwagyeong(Lotus sutra), published by Munsusa(Temple) in Gochang. Characteristics of this vocabulary borrowed system chinese-character can be summarized in three ways.

First, Vocabulary wa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instead of Korean. This shows the possibility that the tradition of writing hyangchal or gugyeol continued.

Second,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showed a different aspect from that of Middle Ages Koreans such as 'Beophwagyeongeonhae'(late middle age Korean Translation of Lotus Sutra). Although the ratio was not high, it is similar to the southern Korean dialect, so it is possible that the language written at the time reflected the southern dialect.

Third, We looked at negative statements. negation structures was found that there is a tendency that long-form negatives are mainly used notation in the borrowed Chinese characters that were written in the negative sentences of this document.

Therefore, this study can be expected to serve as a new

material for the continuity of Korean from ancient Korean to modern Korean and the synchronic differentiation of contemporary languages. In addition, it can be used for research on the overall secondary character notation including Hyangga(鄕歌) and Idu(吏讀).

Key words : *Beophwagyeong*(法華經, Lotus sutra), *Beophwagyeong Eonhae*(法華經諺解), written decoding system of borrowed Chinese characters(借字表記), *Kugyo*(口訣), Translation, Lexical history, dialect history, dialect orthography

[참고문헌]

■기본자료

국립국어원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서비스시스템 신집성문헌

(<http://kabc.dongguk.edu/Home/Contents?ccode=03&tcode=10&navikey=1>)

- 문헌번호: ABC_NC_I_KR_08_A002_00014_0001 권1-3

- 문헌번호: ABC_NC_I_KR_08_A002_00503_0001 권4-7

김무봉 역주(2002), 『역주 법화경언해』 권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김영배 역주(2000), 『역주 법화경언해』 권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김영배 역주(2001), 『역주 법화경언해』 권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김영배 역주(2002가), 『역주 법화경언해』 권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김영배 역주(2002나), 『역주 법화경언해』 권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김영배 역주(2003), 『역주 법화경언해』 권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유기 역주(2003), 『역주 법화경언해』 권7,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황선엽·이전경·하귀녀 외(2009), 『석독구결사전』, 박문사.

■단행본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南京蘭(2005), 『麗末鮮初 音讀 口訣(口訣)의 綜合的 考察』, 景仁文化社.

南豐鉉(1981), 『차자표기법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南豐鉉(1999), 『國語史를 위한 口訣研究』, 太學社.

동국대학교불교문화유산아카이브(ABC)사업단(2017), 『원각사의 불교문헌』,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박광연(2013), 『新羅法華思想史研究』, 혜안.

安秉禧(1977), 『中世國語口訣의 研究』, 一志社.

■논문 및 기타 자료

남경란(2008), 「여말선초 음독구결문의 성립배경 -《능엄경》, 《법화경》, 《육조대사 법보단경》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40, 289-318.

남경란(2010), 「음독 입결과 한글 입결의 상관성 -《능엄경》, 《법화경》, 《육조대사 법보단경》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45, 3-30.

문상련(정각)(2018), 「수덕사 塑造 여래좌상 腹藏 典籍類 고찰」, 『정토학연구』 30, 한

- 국정토학회, 161-198.
- 朴鎭浩(2008), 「구결 자료 해독의 방법과 실제」, 『한국문화』 4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39-348.
- 송일가·정왕근(2013), 「麗代鮮初의 17字本 『法華經』 板本 研究」, 『서지학연구』 59, 서지학회, 347-370.
- 안대현(2021), 「원각사본 『능엄경』의 음독구결과 언해 기반 석독 표기」, 제59회 구결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어말선초 음독구결 자료의 신연구’, 구결학회, 75-88.
- 장경준(2019), 「법웅스님 소장 〈법화경〉 구결에 표시된 부독자(不讀字)」, 『한국어학』 84, 한국어학회, 91-134.
- 장경준(2022), 「원각사 소장 『능엄경』 구결의 어순 표시」, 『口訣研究』 49, 口訣學會, 239-270.
- 정왕근(2012), 「조선시대 묘법연화경의 판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은영(2022),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능엄경』 구결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鄭在永(2014), 「口訣의 종류와 각 시대별 특징」, 『大學院研究論集』 제7집,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99-142.
- 하정수(2020), 「프랑스국립도서관(BnF) 소장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大佛頂如來密因脩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권1, 2에 기입된 구결(口訣) 및 한글 연구」, 『국어문학』 74집, 국어문학회, 1-37.
- 하정수(2022가), 「고양 원각사 소장 보물 제2056호 『능엄경』의 서지(書誌)와 판본(版本) 연구」, 『口訣研究』 49, 口訣學會, 203-237.
- 하정수(2022나), 「프랑스국립도서관(BnF) 소장 능엄경(楞嚴經) 권9, 10 기입 목서 연구」, 『국어문학』 81, 국어문학회, 175-216.